입대영장 기다리는 키움 불펜 특급, '유종의 미' 각오

"언제나 전력투구" 조상우의 마이웨이

마무리 기회 없어 시즌 중 셋업 변신
최근 경기 152km 구속 되찾았지만
밸런스 잡은 게 더 좋다는 여유로움
"태훈이 형 멘탈 굿…이젠 너무 잘해"
자신의 뒤 지키는 선배 따뜻한 응원

키움 조상우는 후반기 한때 직구 최고구속이 142km까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회복했다. 스스로 꼽은 비결은 밸런스다. 스포츠동아DB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이슈가 된다. 주위에선 스피드건에 찍힌 구속을 보고 환호와 우려를 보내지만, 정작 조상우(27·키움 히어로즈)는 언제나 담담하다. 마무리투수에서 셋업맨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오직 포수 미트만을 보고 있다. 군 입대 등 첨예한 이슈가 얽혀있음에도 마인드는 그대로다.

조상우의 2021시즌은 다사다난하다. 19일까지 시즌 성적은 39경기에서 39이닝을 던지며 6승5패14세이브3홀드, 평균자책점(ERA) 3.92다. 세이브와 홀드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시즌 중간 보직 변경을 겪었다. 리그 최고의 구위를 자랑하는 마무리임에도 등판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기는 경기에선 대승을 하고, 지는 경기에선 조상우 카드를 낼 수 없으니 강제휴식이 길어졌다. 홍원기 감독이 결단을 내린 이유다.

여기에 여름에는 2020도쿄올림픽 출전도 있었다. 대표팀이 치른 7경기 중 6경기에 등판해 146구를 던졌다. 후반기 들어 구속이 떨어지자 혹사 논란이 불거진 것도 당연했다.

구속은 다시 찾았다. 조상우는 19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1.2이닝을 소화했는데, 최고구속을 152km까지 찍었다. 후반기 한때 최고구속이 142km까지 떨어졌으니,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는 의미다.

빠른 공은 조상우의 가장 큰 무기이지만, 정작 스스로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2년 전 158km를 찍을 때나 올해 142km에 머물 때 모두 마찬가지였다. 조상우는 "2군에 다녀온 뒤 밸런스가 깨졌다. 송신영 투수코치님과 이야기를 하며 밸런스를 잡았다. 구속을 안 본지 꽤 오래돼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는 몰라도 밸런스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조상우는 올 시즌 종료 후 군 입대가 예정돼있다. 올림픽 메달이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무산됐다. 정작 스스로는 덤덤하다. "입대 영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너털웃음을 짓는 조상우. "그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며 마운드에 오른다"며 전력투구만 다짐한다.

자신의 뒤를 이어 뒷문을 지키는 김태훈(29)에게도 격려를 전했다. 2년 선배이지만 마무리 경력이 없기 때문에 조상우의 크고 작은 조언이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조상우는 "올해 우리 팀에 9회가 잘 안 온다"고 아쉬워하면서도 "(김)태훈이 형의 멘탈이 워낙 좋다. 처음 한두 경기는 긴장된다더니 이제 잘한다"며 박수를 보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김현수 문성주

"이렇게해선 1군서 생존 못해" 문성주를 깨운 캡틴의 한마디

〈LG 김현수〉

1군 20경기 타율 0.298·1홈런·9타점·11득점
"투볼서 가운데 속구 놓치면 안돼" 애정어린 조언

퓨처스(2군)리그 무대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콘택트 능력을 뽐냈지만, 1군 선수로 향하는 마지막 껍질을 좀처럼 깨지 못했다. 이러한 도돌이표가 한두 시즌 더 반복된다면, 정체성이 애매해질 수도 있다. 그 위기서 '캡틴'이 나섰다. 그리고 문성주(24·LG 트윈스)는 어엿한 1군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문성주는 19일까지 1군 20경기에서 타율 0.298, 1홈런, 9타점, 11득점을 기록했다. 7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선 꿈에도 그리던 첫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2년제인 강릉영동대를 졸업한 그는 2018년 신인드래프트 2차 10라운드로 막차를 탔다.

지명순위는 아마추어 때까지만의 징표라는 것을 문성주가 보여주고 있다. 입단 첫해부터 2군 79경기에서 타율 0.352, 4홈런, 31타점, 55득점을 기록했다. 2019시즌에 앞서 군에 입대했고, 올해 1월 전역했는데 2군 46경기에서 타율 0.303, 2홈런, 17타점으로 활약했다. 1군 콜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1월에 전역했으니 복귀 후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예상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올 시즌 구단의 플랜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2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류지현 감독은 콜업을 망설이지 않았다.

류 감독은 최근 문성주에 대해 "시즌 시작 시점에 우리 전력에 있던 선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군에 복무하면서 체력관리 등 잘 준비를 했다. 황병일 수석코치(전반기 2군 감독)가 장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했다"며 "1군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덕에 어려운 시기 순위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성주는 "흔히 5툴이라고 하는데, 다 애매한 것 같다. 그럼에도 류지현 감독님과 황병일 수석님이 기회를 주셨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전까지 문성주 스스로는 타격에 80%, 수비와 주루에 20%의 비중을 뒀다. 하지만 7월말 퓨처스 서머리그 당시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이 생각을 바꿨다. 타격의 비중을 확 줄이며 수비와 주루에 신경을 써야 1군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던 콜업 직후, 주장 김현수가 다가왔다. 그는 문성주에게 "이렇게 해서는 눈도장 못 찍는다. 다시 2군에 가고 싶나. 1군에 계속 있으려면 빠릿빠릿하게, 살아남으려는 독기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중에도 "볼카운트 2B에선 가운데 속구를 놓쳐선 안 된다"는 등 온갖 조언을 해준다. 문성주는 "감독님, 수석님, 임훈 타격코치님과 현수 형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최익래 기자

벨린저 동점스리런·베츠 역전결승타…다저스 기사회생

챔피언십시리즈 '패자의 역습'

NLCS 3차전 패색 짙던 다저스
8회말 대역전드라마 '반격 1승'
ALCS 4차전선 알투베 '속죄포'
휴스턴, 9회 뒤집기로 '2승 2패'

POSTSEASON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선승제) 1·2차전을 모두 내줬던 LA 다저스가 극적 승리로 기사회생했다. 20일(한국시간)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NLCS 3차전에서 8회말 4점을 뽑아 6-5 역전승을 거뒀다.

다저스는 믿었던 선발투수 워커 뷸러가 3.2이닝 만에 7안타 3볼넷 3삼진 4실점으로 무너져 3연패 위기에 몰렸다. 1회말 코리 시거의 2점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8회초까지 2-5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8회말 윌 스미스와 AJ 폴락의 안타로 만든 1사 1·2루 찬스에서 코디 벨린저의 우월 3점홈런으로 5-5 동점을 이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크리스 테일러의 안타와 2루 도루, 맷 비티의 내야땅볼로 만든 2사 3루 후속 찬스에서 무키 베츠의 우중간 2루타로 승부를 뒤집었다. 9회초 등판한 다저스 마무리투수 켄리 젠슨은 오스틴 라일리, 작 피더슨, 애덤 듀발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4차전에선 원정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9회초 대거 7득점으로 보스턴 레드삭스를 9-2로 꺾고 2승2패로 균형을 회복했다.

7회까지 1-2로 뒤지던 휴스턴은 8회초 선두타자 호세 알투베의 좌월 솔로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전날(19일) 3차전 2회말 대량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실책의 아쉬움을 만회하는 극적 홈런이었다. 기세가 오른 휴스턴은 9회초 카를로스 코레아의 2루타로 만든 2사 1·2루 기회에서 제이슨 카스트로의 중전적시타로 3-2 역전에 성공한 뒤 다시 4안타 2볼넷을 묶어 6점을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보스턴은 올해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ERA) 3.45를 기록 중이던 선발투수 네이선 이볼디까지 내보내며 필승의지를 불태웠지만, 이볼디가 0.2이닝 2안타 2볼넷 4실점으로 무너져 고개를 숙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LA 다저스 코디 벨린저가 20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애틀랜타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홈경기에서 2-5로 뒤진 8회말 동점 3점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다저스는 이 홈런을 앞세워 8회말 역전에 성공해 6-5 승리를 거두고 2패 후 첫 승을 신고했다. LA | AP뉴시스

"김호령의 '짜고치는 고스톱', 개인적인 생각"

KIA, 2군 타격왕 담합 의혹 자체조사

KIA "어떤 요청도 지시도 없었다"

퓨처스(2군)리그 '타격왕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구단 자체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최근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타격 1위와 관련해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타율 0.388로 타격왕에 오른 상무 서호철이 KIA와 8~9일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 수비진의 봐주기 도움을 받아 타격왕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2위는 롯데 자이언츠 김주현(0.386)이었다.

수비진을 이동시켜 상대 타자에게 안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자, KIA는 19일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20일 한 매체에서 KIA 외야수 김호령의 메시지 캡처 화면을 근거로 상반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다. 김호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문자를 피해선수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KIA는 이와 관련해 20일 자체 추가조사 및 2군 선수단 면담을 진행했다. KIA는 "상무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우리 선수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김호령 면담 결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문자는 김호령이 '번트 안타에 대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롯데 선수의 말에, 이를 연속 번트 안타가 나와 롯데 선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로 차원에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KIA는 '박치왕 상무 감독이 KIA를 방문해 이야기했다는 첫 타석 번트 등'에 대한 발언은 "김호령 본인이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KBO의 조사에 한점 의혹 없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